

김 영 수  
 (주)건축국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Young-s●●

# 근대사의 슬픔은 곧 건축의 아픔이었다

- 마지막 황손 이구(李玖)씨의 영결식을 보면서 -

Sorrow of Our Modern History has  
 been the Pain of Architecture

- Observing the Funeral Service of Lee Gu, the Last Imperial  
 Descendent

feature

대한제국은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왕조다. 1905년 일제강탈로 잃어버린 왕국이니, 꼭 백년전의 일이다.

1931년 12월 29일,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영친왕은 일본 황족인 이방자여사와의 사이에서 둘째이들 이구를 낳았다. 첫째는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돌아갔으니 홀로 외동의 자리를 지킨셈이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일본국 대사의 눈에 띄어 MIT 건축학부로 옮겨 졸업했다. 그 후 뉴욕의 IMPET 사무실에서 건축설계를 익혔고, 여기에서 8년 연상의 주리아와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슬하에는 자식이 없어 종친의 강압으로 이혼까지 당했다.

필자가 이구씨를 만난 것은 1966년이었다. 고주석(전 텍사스 주립대 교수)씨 그리고 장문기(전 조경기술사회 회장)씨와 함께 대구 달성공원 설계를 맡아 할때다. 낮에는 TAK(Trans Asia Korea)에서 일하고 밤에는 종로의 여관방에서 마무리 실시설계에 여념이 없었다. 당시 TAK는 미8군에 있는 TAE와 협업관계에 있었으나 초창기의 회사조직과 운영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중국대사관 설계가 그 모태였지만 TAK이후에는 달성공원, 청기와 주유소, 호남오일기숙사 정도의 프로젝트가 고작이었다.

TAK의 해산과 더불어 그 이후는 단 한번의 만남도 가지지 못했다. 부인과 함께 조선호텔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기회가 있으면 만나자는 소식만 오갔을 뿐인데, 이렇게 비보에 접하고 보니 필자부터 몹쓸 사람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애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사람과 산다는게 다 무엇인지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마지막 황세손, 그는 그의 마지막 길까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다. 볼모의 나라, 도쿄시내의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 객실에서 홀로 눈을 감았으니 말이다. 프린스호텔은 그의 생가터이기도 한 곳이다. '마지막' 과 '홀로'는 그의 대명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책갈피 속에도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비운의 역사는 비련의 왕자를 마지막으로 데려갔다.

9일장인 그의 영결식은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에 창덕궁 회정당 앞에서 있었다. 생전의 그와 비교해보면 실로 놀랍고 엄청난. 육군 군악대의 조악(弔樂)은 그만두고라도 국무총리의 조사와 문상객들의 규모에 먼저 놀랄 수 밖에 없다. 조선왕실 전통상례에 따라 취타대 그리고 만장행렬과 어가가 이어지고 남양주 영친왕 묘역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하며 그야말로 엄청난 장관이었다. 마지막 역사속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라스트 씬'은 영화속의 마지막 장면 같았다. 폭염속에서 애뜻해하는 그의 이혼녀 주리아의 모습이다. 휠체어에 앉은 83세의 노파가 종묘노제 건너편에서 단장의 슬픔을 삼키는 기구한 인연이다. 필자도, 어느 누구도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었으리라.

이제 그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그의 일생을 되새기듯 회은(懷恩)이라는 이름으로 홍릉뒤편의 영원(英國)에 안장됐다. 오욕의 거처이기도 했던 낙선재에 3년상의 상청을 마련했으나, 마지막 한이지만 마음껏 풀고 가셔야 할 텐데 딱하기 그지없다.

기구한 인연, 파란만장의 일생, 마지막 어가행렬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제각각이었을 것이다. 국치의 한과 왕조의 비운을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필자는 조금은 다른 상념에 젖어있다. 죽어서 그렇게나 훌륭한 사람이 살아 생전에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명문 MIT 출신으로 귀국까지 했는데 건축 활동을 또 왜 그랬던가 하는 의문이다.

우리 숙담에 작은 고추는 맵다고 했다. 그러나 남이 보기에 그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숙담이 일반적으로 맞아 왔다면 그는 그 자신에게는 최소한 그랬는지도 모른다. 울분을 삼키고 분통을 이기며 풍파를 헤치고 명예를 지키는 그 일은 그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헤아리기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키는 작지만 누가 봐도 귀공자 얼굴에 귀한 미소의 소유자였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헤어스타일에 고상한 톤의 옷맵시에서 언제나 귀족풍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와 "청사진"이라는 우리말 돌박에 듣지 못한 필자한테서 따끔한 일침을 받을때는 멋쩍게 웃곤했던 그였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프린스(Prince)로서 그 체통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중에서도 바로 우리말이다"하고 아픈 가슴을 건드리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얼마나 말을 배우고 또 썼는지 알길이 없지만 아마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자신의 왕국속에 스스로 우뚝 서지 못한 연유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그는 진정 하고싶어도 그의 태생적 조건이 그로 하여금 어쩔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 그였지만 조국의 품도 너무나 냉랭했다. 정부입장에서나 정책의 차원도 그러했지만 국민도 증친도 그리고 건축인도 따뜻한 손길이나 눈빛 한번 제대로 보낸적이 있는가. 죽어서는 왕자이긴 임금대접하면서 살아 생전에는 왕자이긴 이방인 대접만 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건축인들의 책임 또한 모면할 길이 없다. 필자부터도 나름대로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하는 죄책감이 사로잡힘을 숨길 수가 없다. 그토록 전통건축을 아끼워했고 또 언제나 설계속에 고전의 디테일을 심고자 했던 그를 보고

서는 그가 정말 조선왕가의 진혈이구나하고 생각했던 필자에게는 더 큰 아쉬움이 남고 또 남는다. 왜 그를 이 나라에 잡아두지 못했고, 필자의 조그만 힘이지만 왜 보낼 수 없었는지 후회가 막급이다.

어쩌면 그의 가슴속에는 불태우지 못한 건축의 열정이 응어려져 있었을 지도 모른다. 동시에 한국의 현대건축이 우리의 전통건축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에 비통함을 참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는지도 모른다.

이구의 건축이 싹을 내릴 수 없었던 한국의 풍토, 그 토양이 정녕 좋은 것만은 아님은 너무나 분명하다.

왕국의 부상을 염려해온 해방이후의 정치권력자들이 그랬고, 철옹성을 꿈꾸며 남의 건축을 견제해온 초기건축가들이 또한 그러했다. 그사이 눈치높음에 안주한 증친들과 명분도 인정도 잊어버린 국민들 또한 그 동행자들이었다.

잃어버린 왕국 100년, 다시 찾은 우리나라 60년은 그야말로 슬픈 근대사임에 틀림없다. 사건·사고들을 열거할 필요도 없이 75년의 한평생을 마감한 화은 이구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건축의 역사에서도 이구의 시공간에 초점을 맞추면 그 슬픈 근대사에 못지않게 건축의 아픈 상처를 잇을 길이 없다. 건축법이 시행된 것은 40년전인 1965년의 일이다. 조국에서 건축의 인생을 꽃피우려고 귀국한 이구의 인생 역정과 맞떨어진다.

처음에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었으나 건축의 길은 바른 듯이 보였다. 이구도 그랬고 당시의 건축상황도 비슷했다. 그 이후 이구는 조자룡의 칼에 휘청거렸고, 시중의 건축사무소는 대소로 양분되면서 부침(浮沈)을 거듭했고 수주질량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다시 이구는 한국을 떠나버리다시피 했고 설계판도는 감리전문회사의 등장과 함께 약육강식의 절대 시장구도로 재편되어 가고 있었다. 양쪽의 아이러니칼한 건축의 대조 양상이었다.

세기가 끝나고 그는 죽어서 돌아왔다. IMF보다 더 혹독한 건축의 불행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다. 그의 건축은 끝났어도 한국의 건축은 새힘을 얻으라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 같다. 그가 살아온 근대사의 슬픔은 동시에 건축사(建築史)의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건축의 참모습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 같기도 하다. 이제 그가 남기고간 인간과 질기고 부드러운 건축이 한국의 토양속에 한줌의 흙으로 고이 남았다.

그는 근대사에서는 그 이름만으로도 역사에 오르겠지만 건축사에서는 한 줄이나마 쓰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황세손에 초침이 맞춰져 건축작품 하나 거론치 않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우리가 그의 건축작업과 열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건축을 위해 그의 작품에 조금이라도 빛을 더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의 역사속에 건축이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축을 이끌고 있는 우리 건축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역사와 국민속에서 차지하는 우리 건축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지 않고서는 그 기대조차 또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길지도 않았던 그와의 인연속에서 '왕자의 건축'이라는 또 다른 한자리를 메꾸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건축의 명운도 함께 빈다. ■